

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일본어와 한국어!

- '-네(요)'는 'ね'가 아니야?

비슷한 뜻으로 사용되는 데다가 발음까지 비슷해서 가끔 잘못 사용하는 예로서 일본어의 'ね'와 한국어의 '-네'를 들 수 있습니다. 이 두 형식은 각각 'これ、美味しい [ね] !'의 '이거 맛있 [네] .', '終わった [ね] 。'의 '끝났 [네] .'와 같이 일본어의 'ね'와 한국어의 '-네'는 대응하고 있습니다.

하지만 '-네'와 'ね'를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경우도 확실히 있지만 완전하게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형식이라고 믿기에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. 여러분, 지난번 이야기에서 '忘れないでください [ね] 。'를 한국어로 어떻게 이야기하면 되는지 기억하고 계세요? '잊어 버리지 마세요.'였죠? '-네'가 안 보이는 거 아시겠어요? 이번에는 '-네'와 'ね'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

일본어의 'ね'는 다음과 같이 화자가 청자에게 서로 공유하는 정보나 청자가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보에 대해서 확인하거나 동의를 구하거나 하는 경우에 자주 사용됩니다.

① (外を歩いている二人、AがBに)今日は天気がいい [ね] 。

② (料理を一口食べて) 美味しい [ね] 。

또는 화자가 청자에게서 주의를 끌거나 공통된 주제 속으로 끌어들이기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③ A:連載はいつからですか。

B: そうだね。えーと、(スケジュールを確認して) 来週からだ [ね] 。

이에 반해서 한국어 '-네'의 주요 기능은 발화시에 화자가 처음으로 알아차리거나 알게

된 것에 대해서 감탄이나 놀람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합니다. 위의 예를 가지고 보면 ①의 ‘天氣がいい’, ②의 ‘美味しい’, ③의 ‘来週からだ’는 화자가 밖에 나가서 처음으로, 먹어 보고 처음으로, 스케줄을 확인하고 처음으로 알게 된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다음의 ①’~③’처럼 한국어의 ‘-네’를 쓸 수 있습니다.

①’ 오늘은 날씨가 좋 [네] .

②’ 맛있 [네] .

③’ 다음 주부터 [네] .

한편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. 공동 작업으로 마지막 원고를 쓴 후에 한 사람이 ‘終わったね.’라고 말합니다. 이 ‘終わった [ね]’는 일이 끝난 사실에 대해서 다른 작업자에게 공감을 표하고 요구하는 뜻으로 문제없이 ‘ね’를 쓸 수 있지만, 한국어는 어떨까요? 보통이라면 한국어는 ‘끝났다!’와 같이 말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. 자기가 원고를 다 쓰고 나서 ‘그 끝난 사실’에 대해서 지금 알았다는 듯이 말하는 것은 부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한국어로 말할 수 있게 됩니다.

④ (급하게 집에 돌아왔는데 드라마가 이미 끝난 것을 알고) 아, 끝났 [네] .

또한 일본어의 ‘ね’는 ‘食べて [ね] .’, 리포트 등을 ‘今日まで出して [ね] .’와 같이 청자에게 무언가를 시키는 것과 같은 지시를 할 때에 사용하며 ‘食べて.’, ‘今日までに出して.’와 비교하면 그 어감이 매우 부드러워지는 효과를 나타낸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한국어의 ‘-네’에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. ‘-네’를 사용하려면 발화시에 처음으로 알아차리거나 알게 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‘食べて [ね] .’는 ‘네’ 없이 ‘먹어.’, ‘今日まで出して [ね] .’는 ‘오늘까지 내.’라고 해야 합니다. ‘먹어네.’나 ‘오늘까지 내네.’라고는 하지 않는 것에 주의해 주세요.

이번에는 일본어와 한국어로 생각할 때의 차이로서 일본어의 ‘ね’와 한국어의 ‘-네’를 중

심으로 이야기했습니다. 두 형식은 서로 같이 바뀌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형식이라는 것을 이해하셨나요? 아, 어려우세요? ‘아, 어렵 [네] 요.’라고 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한국어 정복이라는 ‘보물’을 찾아서 한 발 한 발 나아갑시다.

박천홍 (도쿄대학교)